

격려 말씀

오늘같이 뜻 깊은 자리에 사부대중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반가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지난 1월부터 우리 종단은 종단백년대계를 위한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우려와 불신이 작지 않았으나, 부처님 당시의 전통을 살려낸 열린 광장에서 사부대중의 평등한 대화를 이루어 가는 일은 참으로 많은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중공사에 참여한 대중들이 한국불교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공감하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함께 마음을 열고 있습니다. 또한 대중공사를 거듭하면서 대중공사라는 부처님 방편에 대한 놀라운 힘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불교를 구성하는 대중이 중앙의 대중공사에 모인 백여명으로 한정될 수는 없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불법을 흥포하고 정토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실질적인 다수 대중이 대중공사의 힘을 체험하고, 그 원력으로 한국불교의 도약과 저력을 발휘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때, 여건이 가장 취약하다고 평가받는 전북지역이 지역 대중공사의 첫발을 내딛는 것은 역사적인 일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자리에 함께 하게 되어 유익함이 가득하며, 여러분의 열정에 깊은 격려를 드립니다.

중앙의 사부대중 100인대중공사를 시작하면서 불신을 딛고 일정정도 성과를 이루어 내기까지 몇 가지 중요한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저 스스로 권위와 직책을 내려놓고 대중과 평등한 입장에서 대화하고 소통하려 애썼습니다. 실제로 총무원장의 소임과 집행부에 대

한 적나라한 의견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대중공사를 시작하면서 약속드렸듯이 종단과 한국불교를 위한 진심어린 도반들의 고언이라 여기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 지적들을 받아 안았고, 함께 만들어낸 대안들을 현실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낮은 자세로 상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신이 처한 자리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 이것이 그간의 대중공사의 성과를 가늠하는 첫 걸음이었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하고 있는 사부대중 모두가 이러한 마음이지겠지만, 특히 지역불교에 소임을 맡고 있는 지도자분들께서는 꼭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대중들의 열의와 성숙한 대화의 자세입니다. 중앙의 대중공사는 원활한 대화의 장과 그 진행에 대한 우려가 많았지만, 어렵게 열린 이 대중공사의 장이 꼭 성공해야 한다는 대중들의 열의로 지금까지 여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오랜 실행활동을 통해 몸에 배어 있는 불자의 소양을 아낌없이 발휘하면서, 대중공사를 거듭할수록 허심탄회한 대화와 소통의 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한번도 시도해본 적이 없는 평등한 대화의 장에 처음부터 익숙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법을 깊이 따르듯이, 이러한 대화의 장도 부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열과 성을 다해 지극하게 마주하기를 바랍니다.

대중공사는 따로 지도자가 없으며 주인이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모두가 책임자이며 주인입니다. 모두가 동등한 입장에서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나아가 대중의 지혜는 꼭 현실에서 반영되어야 합니다.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부터, 중장기적인 대작 불사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주인이라는 심정으로 어떻게 함께 만들어 갈 것인가를 마음 깊이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전국의 불자가 전국의 대중공사를 큰 관심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계시는 분들이 스스로 지역불교의 미래를 위해 대중공의의 장을 마련하는 최초의 법석에 많은 불자들이 기대와 걱정을 함께 하고 있을 것입니다. 처음인 만큼 어려움도 클 것이며, 쉽지 않은 여정일 될 것입니다. 종단에서도 이 전북의 대중공사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도울 일이 있다면 적극 협력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대중여러분의 신심과 원력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로 시작하는 대중의 지혜로움이 이 지역은 물론 종단과 불교 전체의 향기로움으로 크게 회향하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59년 7월 25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